



CONTENTS

07Jul-08Aug 2015/vol.117



In Newsquare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하려니 부담 되네요" I 이승민 04 YTN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에 대해 I 김태균 06

Exclusive No

이틀 자가격리부터 '낙타 뻗치기'까지 I 김승환 08 여자의 시선, 아이의 시선 I 임성호 10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YTN 뉴스퀘어를 관리 운영하면서… I 김근수 12

연수후기_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아카데미 재난재해전문취재과정

마음도 복구될 수 있을까? | 나연수 14

지국은 지금 _ 세종시 지국

"세종의 아침을 여는 건 안개입니다" I 고한석 16

이 방송, 궁금하다.

- 기대하라! 과학방송의 대변신 | 이유찬 19
-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_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 이형철 20

YTN에 바란다

열린 사고(思考)의 YTN I 신 율 22

부서탐방 _ 주말뉴스팀

"주말 뉴스 없는 세상을 꿈꾸는 주말뉴스팀입니다" | 이선아 24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5, 6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5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황주리 작가

26 홍경한 | 황주리, 아름답고 따뜻한 삶의 언어

앵커의 변신 _ 류충섭 앵커

· 28 김시호 I 냉정과 열정사이 '킹스맨'의 뉴스를 꿈꾸며···

YTN 달인들 류주현 앵커

30 류주현 I "바이올린이 죽마고우라면, 앵커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연인이에요"

낭만人 탐구 _ 이한빈

32 이한빈 | 이 화백이 간다!!

최광희의 News In Cinema _ 소수의견

34 최광희 |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포토에세이 20 · 21

- 36 김정일 I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 37 최민호 I 두산타워에서 본 DDP 건물

YTN 이모저모

38 YTN 이모저모





표지 **황주리 作**

황주리의 그림에는 화롯불마냥 상처받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묘한 여운이 있으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결핍과 갈망, 꿈과 현실이 조화롭고 진솔하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굳이 긴 설명을 달지 않아도 삶과 사람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과 마음이 어깨 너머로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듯 다가선다는 것이며, 보편적인 삶에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이 덧대어지면서 우리네 삶이 보다 특별해진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조형언어로서 부족함이 없다.

발행인 조준희 편집 홍보·시청자팀 (121-904)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하려니 부담 되네요"

이승민 앵커 | 보도국 앵커실

방송언어

교육을 위해 섭외된 강사들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 우리는 24시간 뉴스채널에서 일하는 방송언어 전문 가들이다. 방송사 입사를 위해 한국어 공부도 그 누구보다 열 심히 했었다(과거형에 주목하시라).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방송 심의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 잘못된 발음 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아차'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아마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바쁘게 기사를 쓰고 급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 생기는 실수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 헷갈리는 표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앵커와 기자들을 위해 재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방송언 과 친절한 방송 사이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어 교육. 표기법에 대한 것들은 맞춤법 검사기나 표준국어대사전을

사흘 동안 하루 두 번씩 이뤄진 강의에 모두 100여 명이 넘는 용하면 대부분 걸러진다지만 발음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사내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 특히 강사들에게 YTN 방송을 직접 보고 조언해달라고 요구 했던 터라 강의 내용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 서 더욱 유익했다. 강사 한 분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조목 조목 살펴보고 오류가 있는 표현들을 수정해주는 열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 요즘은 영어표기를 줄여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주 반복하는 용어들이어서 익숙하지만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자막에는 글자 수 때문에 ICBM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표현과 친절한 방송 사이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표기법에 대한 것들은 맞춤법 검사기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

문이 아닌 방송사에서 일하는 우리로서는 표기만큼 발음법이 중요한데 말이다. 온라인은 [온나인]과 [올라인], 38NORTH의 숫자읽기는 [삼 날심이 아주(?) 뜨거웠다. 팔]과 [삼십팔] 모두 허용되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읽을

팔]과 [삼십팔] 모두 허용되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지 약속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인다.(일단 앵커실에 서는 [삼팔 노스]로 읽기로 통일했다.)

이 없는 것들도 있어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어찌 보면 신

한글 맞춤법은 1988년 1월 고시된 이래 2014년 12월 일부 개정만 됐을 뿐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두 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새로운 표준어는 수시로 추가되고 있다. 실제로 방송언어 교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새로운 단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랐다.

이번에 강의를 맡은 강사들도 언어학자들이지만 가끔 헷갈릴때가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런걸 보면 진정한전문가란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역시 방송언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 순간에도 맞춤법검사기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앵커 개개인들도 방송언어 사용에 경각심을 갖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또 앞으로도 이런 강의들을 계속 마련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자막에 표기나 띄어쓰기가 틀리는 부분들은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 더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강사 가운데 한 분이 지상파 메인뉴스 자막을 내보내기 전에 검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도 이런 업무 협약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어쨌든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 CNN이나 영국 BBC 방송을 찾는 것처럼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YTN을 보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참고**: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메일센터에 동영상과 자료를 함께 올려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 YTN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YTN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에 대해

김태균 수석컨설턴트 | IBK컨설팅센터

MEWSOLARE 위한 경영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컨설팅은 방송 산 업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YTN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위해 IBK컨설팅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컨설팅 TFT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 **이** 준 책임 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YTN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 안을 고민하고자. 경영전략 전문 컨설턴트 2명. 회계사 1명. 조직인사 전문 컨설턴트 2명, 노무사 1명을 선정하여 파견하

> 였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현황 데이터 및 자료를 분석하고, 국/실장급 개별 인터뷰를 통해 YTN 및 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 조직, 인 사 관련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 결과. 현재 YTN은 외부적으로 경쟁 심화와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노령화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 다.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에 따른 갈등 심화로 위기 돌

파와 지속 성장을 위한 내부 동력이 훼손된 점이 무엇 보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조직'으 로 내부의 경영시스템이 사장이 바뀔 때마다 경영스 타일에 따라 바뀌다 보니 직원들의 공감대와 신뢰

를 얻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경영시스템이 없다

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구조적으로 고령 화, 고직급화로 인해 생산성 대비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존의 뉴스 중심 사업으로 비보도(사업 및 경영)의 전문성 및 역량이 높지 않아, 악화되고 있는 방송(광고) 중심 수익 구 조를 극복하고 재무적으로 건실함을 갖추어 가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YTN 내부적으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 체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하고. 그것은 YTN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고 생각합니다.

금번 컨설팅에서는 매출과 이익 제고를 위한 YTN의 돌파구 는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를 위한 비보도 전문성을 높이고. 인위적인 인력조정 없이 고령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 니다. 이러한 고민이 컨설팅을 추진하는 TFT만의 고민이 아 니라 전사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나가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컨 설팅 TFT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금번 컨설팅이 YTN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국내 최고의 뉴스 방송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98 로시작하는 전화가 울렸다. 야근 전 일찍 카페에 들러 늦은 오후를 즐기던 때였다. 뭔가 있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부리나케 회사로 들어갔다. 평택으로 가게 됐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임원으로 근무했던 버스 회사로 가야했다. 임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지만, 여러 직원들과 접촉했는데도 회사에선 "괜찮다"며 직원들에게 아무 조치도 안 해준다고 했다.

선별진료실접수처

우선 회사 밖에서 노조 측 얘기를 들었다. 버스 100여 대를 굴리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감염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는 건시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사측 의견도 들어야 했다.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로 인터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장이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사에 직접 찾아갔다. 회사 당직자는 정부나 시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와서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거길 왜 갔어!"

취재를 마친 뒤 퇴근하고 경찰서로 출근한 새벽. 이대건 캡의 전화가 왔다. 메르스 확진자가 근무한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가야 했다. 입꼬리가 올라간 것도 잠깐. 이틀 간의 '불편한' 자택 근무가 시작됐다.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었다. '혹시 나도?'라는 생각에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발열 증상이 없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 사이 메르스 취재를 다녀온 뒤집에 머무는 '김 모 기자' 신분으로 회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까지 했다. 마치 메르스에 걸려 자가 격리된 것처럼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시 출근한 뒤에 메르스 취재는 이어졌다. 주로 메르스 여파에 대한 후속보도였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우려는 컸다. 같은 기간 서울대공원에 놀러온 방문객들의 수는 메르스 확산 전에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일요일에 갔는데도 평일 오전처럼 한산했다. 마침 YTN 취재진이 방문했던 날은 낙타들도 격리되어있다 풀려난 지 이틀이 된 때였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풀을 질겅질겅 씹는 낙타는 촬영이 시작되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낙타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 격리된 '과천산' 낙타들을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보이지 않는 '메르스'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대형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마스크조차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는 메르스 핫라인으로 전화해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모른다며 하소연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입원을 거부당하고, 의심 증세가 있어 가족과생이별을 하며 지내는 취재원도 있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공포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굳은 얼굴을 한 채 총총 걸음을 하고 다녔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홍해처럼 길이 갈라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으로 표현하며 애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던 정부의 인식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와 큰 차이가있었다. 메르스 기세는 꺾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애써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갖고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이다.

름 돌아볼 때까지도 여자와 아이는 여전히 무언가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안쪽에서 여자와 아이의 마음이 울고 있었는지, 망연자실했던 것인지, 아니 면 일상을 부수어버린 자연에 분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면

그 시선은 네팔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제거

여자의 시선, 아이의 시선 취재기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써야 NEWS 할지 난감했습니다. 해외 재난현장 취재는 처음이었 으니, 그곳에서 새로 보고들은 것들과, 취재하면서 어

> 려웠던 점들을 쓰면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 르는 한 모녀의 이미지 때문에 글이 나아가지 않았습 니다. 결국 원래 쓰기로 한 걸 포기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자라나던 이미지에 대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 | 보도국 사회부

YTN뉴스퀘어를 관리 운영하면

김근수 관리소장 | HDC아이서비스



2013년 12월초 상암동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첫 느낌은 광활한 시베리아 벅파에 으 배를 온 듯 춥고 외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DMC지역 은 유동인구가 적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떼놓는 발걸 음마다 외로울 수밖에는 없었던 듯합니다. 물론 현재는 점심 있지만요.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회사인 아이서비 스(I-SERVICE) 소 속의 FM(Facility Management) 관리소장 이며 회사에 몸담은 지 이제 13년차이며 YTN과 는 1년 9개월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과 인연 을 맺은 건 2013년 10월 이었습니다. 남대문에 위 치한 구사옥인 YTN타워 를 관리하던 전임 관리회 사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인수를 받아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조직을 꾸리며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에

상암동 YTN신사옥의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서희건설로부 터 인수인계를 받고 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발대 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 YTN뉴스퀘어의 외관을 접했을 때 말끔한 외모에 놀라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벽 전체를 유리로 마감하여 심플하 시간뿐 만 아니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파들로 넘쳐나고 고 깔끔한 느낌에 상당히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으며 외관만 보기에는 "아! 공사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 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보던 평온함은 온데 간데 없고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공사로 인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2011년 03월 착공하여 2년 9 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을 불과 1개월 남짓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막바지 작업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 에 선하며 그때 그분들이 노력해주셨기에 지금의 YTN뉴스퀘 어 신사옥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사에 대한 공상에 빠져 있을 수 만 없어서 본능적으로 서둘러 각종 시설물 및 설비들을 둘러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숙지하고 익숙해져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빨리 발견해 낼 수 있으니까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한 뒤에 준공을 맞이하는 것이 이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공사나 감리단에 큰 영향력은 미치지는 못하지만 준공 이후, 처음 그 대로의 건물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 건물 매진하는 것도 잠시였고 유지관리 회사의 책임자로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준공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면서 나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서였는지 YTN 임직원분들이 입주하 셔서 만족하실 만큼의 완성도가 아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로 출발이 될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에 "준공 전 에. 아니 준공 후 개국식 전까지 만이라도…"하며 속으로 되 뇌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도 선명합 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새집으로 이사 오시는 직원 부듴에게 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김점선 미화팀장

시작에 있어 아쉬운 점 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 족한 곳을 채워 나가고 모자란 곳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모든 힘을 보 태주는 관리팀 직원들에 게 매번 감사하고 고마 울 따름입니다. 건물의 전기설비와 기계 설비를 24시간 책임지고 유지관 리 및 운영해주시는 15 명의 시설팀 직원들과 출입통제 및 의전, 주차 통제, 안전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16명의 보안 팀 직원들, 이른 새벽부 터 밤 늦은 시간까지 보 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쓸고 닦기를 반복하시는 24명의 미화팀 직원분들이 지금의 YTN뉴스퀘어가 있기까지 조금이 나마 일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 불만 없이 내 집을 가꾸어 나가듯 열심인 모습을 보면,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얼마 전 YTN 대표이사님께서 미화팀 대기실을 방문하셔서 하 신 말씀이 불현 듯 생각납니다 "여러분(미화)이 좋은 화경에 서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셔야 YTN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맘으로 일을 하실 때 진심이 담긴 업무가 되실 것이며 진 실된 마음으로 미화팀이 업무를 한다면 당연히 YTN은 깨끗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신 말씀은 직원들의 처우 화경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자주 격려금을 전해주시고 부식거 리도 챙겨주시며 낮은 곳에서부터 관심과 시선을 주시는 대표 이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로인해 건물관리를 하는 관리팀 직 원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YTN뉴스퀘어는 서서히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자 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YTN뉴스퀘어 임직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이 건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건물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 한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사용 전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시키 며 관리하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쪼 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불량 전등을 교체하고 쓰레기를 분 리수거하며 항상 긴장된 자세로 로비에 서서 출입자들을 확인 하고 있는 이는 여러분의 재산인 YTN뉴스퀘어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물관리 직원입니다.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업무 중에 만나신다면 따 뜻한 미소 한 번,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 주시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보안팀장

김근수 관리소장





'카트리나' 10년, 뉴올리언스는 지금…

인구 수는 재해 이전과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됐다. 사람들이 지대가 낮은 도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했고 비어있는 주택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도시 풍경이 달라졌다. 다시 지은 주택 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받침대를 괴어 바닥에서부터 허리 높 이 이상 들어올렸다. 무너진 제방은 새 공법으로 다시 쌓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수무을 보강했다.

반면 10년 전 수해의 흔적을 그대로 안고 있는 지역도 있 다. 흑인 빈곤층이 모여 살았던 로어나인스워드(Lower 9th Ward)는 아직도 주택 80% 가량이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다. 뉴올리언스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지역 주민이 다. 가난했지만 이곳에 집과 이웃이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야했다

"첫 해는 쉬웠다. 이듬해는 어려웠고 그 다음 해는 끔찍했다."

카트리나 직후, 도시는 혼란스러웠다. 방화와 약탈, 총격이 잇달았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그런 건 대수롭지 않았다. 가족과 이웃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동은 살 아있음을 일깨우는 자극 정도였을지 모른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문득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잊혀져갈 뿐. 약물 중독과 이혼이 급증했다. 자살이 전 역병처럼 번졌다 카트리나 르포로 픀리처상을 수상한 지역 신문기자 크리스 로즈는 이 기간 자신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 었고 주변에서만 7명이 자살했다고 말한다.

"우리 존재를 살리기 위해 싸웠다"

그런 시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카트리나 피해를 주민 탓 으로 돌리는 여론이었다. 그러게 왜 위험한 저지대에 살았느 냐. 제방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도 시민들 아니냐. 복구 예산 이 막대하니 뉴올리언스를 버리는 게 낫다…. 전국 언론은 마 치 도시가 무법지대인 것처럼 묘사했고 부패 정치인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만 내보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일어나 도시 재건을 위한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연 방 정부에 제방 공사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

샌드 로젠탈은 조직 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분노입니 다.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요. 아침에 눈 뜰 때 마다. 나는 조금쯤 화가 나 있는 것을 느낍니다." 크리스 로즈 의 설명은 보다 절박하다 "문제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 리는 우리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 싸웠어요 "

뉴올리언스와 안산, 공동체는 회복될까

10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 자라온 동네. 즐겨 가던 식당. 친구의 집,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렸고, 그것들은 이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어렵게 마련한 집은 수마에 흔적 없 이 사라졌는데 은행 대출금은 지금도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 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아마도 시민들은 평생 상처 를 끌어안고 서로를 보듬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마주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안산'이라는 공간을 떠올리게 만든다. '왜 저지대에 살았느냐' 는 엉뚱한 비난은 '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느냐'는 잔인한 질문과 겹쳐진다. 뉴올리언스에 연방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곱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세월호 유가족은 마땅 한 보상금을 놓고도 눈치를 봐야만 한다. 뉴올리언스에 남아 있는 후유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 노. 해마다 더해가는 상실감은 어쩌면 안산에 더욱 깊이 박혀 있을지 모른다

10년 뒤, 우리는 안산에서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 언론 은 기자로서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비행기에 올라 작아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동안 국내 교육에서 만난 세월호 유 가족의 젖은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가 꿈꾸는 안산은 딱 한 가지예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 구나 4 · 16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월호 유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이웃들이 유가족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아무런 거 리낌이 없는 사회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세종의 아침을 여는 건 안개입니다"

고한석 기자 | 보도국 세종시 취재팀

있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인공호수 나올 법도 하지만, 대답은 대부분 체념 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땅이 습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죠. 정확 한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여 트 세종에는 안개가 많습니다.

합니다. 새벽부터 100km 넘는 거리를

손에 한두 개씩 짐이 들려 있습니다. 힘 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격한 말이 섞인 한숨입니다. 천성이 그런지 직업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 여 갑니다. 수도권 인구를 끌어와야 하 나치게 순종적인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는데, 공주, 청주, 대전 인구를 빨아들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안개 사이로 고속버스들이 줄지어 도착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정부 청사름 이제 본격적인 세종의 일과가 시작됩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숲이 나 니다. 달려 왔습니다. 월요일이면 공무원들의 타납니다. 높아 봐야 7층인 정부 청사를

20층짜리 아파트들이 빙 둘러싸고 내려 다봅니다. 대체 공무원 말고 누가 살까 싶지만, 주인 없는 집은 없습니다. 세종 을 반겼던 충청도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 니 세종을 보는 눈이 고울 리 없습니다.





YTN을 위해. '풀'이라는 집단 취재의 안락함을 내팽개친 박진수 선배, 괄괄 한 목소리를 뽐내며 이리저리 뛰기 시작 합니다. 일을 찾아서 하면 했지. 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전쟁입니 다.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 모릅니다. 걱정입니다.



탐관오리를 꾸짖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 이는 류재복 선배.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의 한마디에 복지부 메르스 브리핑룸 에는 아침마다 김밥이 배달됩니다. 사회 부처의 최전선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황금박쥐를 발견하 아서, 오늘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을지 고, 흑두루미 떼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여서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면 배꼽 폐기물 처리장이 될 뻔한 수중동굴을 천 잡고 웃습니다. 연기념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친구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계백의 후예 재백이, 태권도 4단이 라는 말이 무색하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한테 손가락을 꺾여서 깁 스를 하고 다닙니다. 미남이기도 하지 만. 성격도 무척이나 좋아서 '중들이 모



선배, 그러나 불평하는 법은 없습니다. 후배들을 웃겨서 스트레스 풀어줘야 한 다는 강박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중들 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이 모여 사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식의 '쿨'이 기재부에서 먹혔던 걸까요. 그러 난감한 개그를 선보입니다. '중국은 중 들의 나라여서, 중국의 수도는 소림사' 록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정부 예산 필 씨입니다. 진짜로, 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후배의 전쟁에 덩달아 따라서게 된 박동일 '쿨'한 삶을 추구하는 황보선 선배, 취재 획재정부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돼 간사 라는 멘트까지 가면 그의 상상력에 박수 확보에 혁혁한 전과를 세우기도 한 그는 곧 전주로 '쿨'하게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종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 힘들고 진입 장벽 높기로 악명 높은 기 지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그러나 재 벌 2세라는 풍문에 걸맞지 않게 분홍색 바지를 즐겨 입는 이종필, 어눌한 듯 보 여도 눈치 100단, 이제는 준기자 반열 나 운명은 그의 '쿨'을 한곳에 안주하도 에 오른 이종필 존경하는 사람은 김종

> 저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 하루하루 후 회를 쌓아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71TH3 HZt!

과학박수의 대변신

이유찬 PD | 사이언스 편성기획팀

신설되는 프로그램 중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3개 프로그램은 한국형 TED 과학강연 이매진 (IMAGINE), 창조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렛츠 메이크 (Let's Make), 의료·뷰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 라이프(Health & life)이다



토크형 강연인 이매진은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널리 전파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방청객은 물론 시청자들 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강연을 펼친다.

이매진은 재치있는 입담. 깔끔한 진행을 자랑하는 김현욱 아 나운서가 MC를, 인기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패널을 맡아 재밌고도 유익한 강연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매월 격주 화요일 상암동 YTN홀에서 공개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매진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방청이 가능하다. 이 제,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즐거운 과학강연의 세계로 빠 져보자!

노종범 PD | 이매진 콘텐츠제작팀

▶YTN사이언스 본방송_ 화 10:00 재방송_화 17:00,화 22:00,토 20:00,일 12:00

▶YTN본방송_ 일 21:30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문 화적 뿌리인 메이커 운동이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렛츠메이크는 실제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찾아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코너1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 고 있는 프로젝트형 체험 코너이다

코너2_ 물건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창의 계층, 메이커 그들 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코너3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발전시키며 즐 거움을 느끼는 메이커들. 창업을 꿈꾸는 일반 메이커들의 본보기 가 되고 미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제조기반의 스타트 업 기 업을 찾아 창업 성공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김영록 PD | 렛츠 메이크 콘텐츠제작팀

▶YTN사이언스 본방송_ 목 22:00 재방송_ 금 10:30, 토 17:30, 일 10:00

▶YTN본방송_ 일 00:30



코너 1_완전정복 헬스클럽

운동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는 지 몰라 우물쭈물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운동만 찾게 되는 사람 들을 위해 〈완전정복 헬스클럽〉 이 나섰다!



코너2_메디컬노트

그동안 의학정보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의사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실제 환자의 치료 성공기를 보여주며 자연스레 병에 대한 이해와 완치 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메디컬 ⑤노트



헬스라이프는 쉽게 이해되는 운동법과 의학정보, 당장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으로 데일리 정보 프 로그램을 보는듯한 생활밀착형 건강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코너4_이윤지의 헬스플러스 라 이프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건강 상식 속에서 고품격 생활 건강을 위 한 알짜 정보를 전달한다

고성민 PD | 헬스라이프 콘텐츠제작팀

▶YTN사이언스 본방송_ 목 20:00 재방송_ 금 12:00, 토 21:00, 일 09:00, 월 06:00

과학전문방송의 리더! YTN 사이언스. 아시아를 대표하는 과학채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쭉~ 노력할 것이다.

코너3_건강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즐거움을 위해 영화를 감상하 보를 전달한다.

고,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생활 속 웰니스, 그 다양한 트렌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정

▶YTN본방송_ 토 21:30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四级针命处量

이형철 PD | DMB 채널운영팀

나타구 시인의 「들꽃」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구절이 있을까?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어떻게 보고 즐기는지 알려주는 문화유산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과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소 식상하지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멈춰있지 않고, 언제나 현재 진행 형이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기에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남겨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 답은 바로 프로그램 속에 있다. 지난 4월 말, 한국문화재재단과 YTN이 맺은 방송콘텐츠 업무 제휴를 시작으로 빛을 보게 된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어떻게 해야 알차게, 조금 더 욕심껏 시청자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한국문화 재재단과 YTN 그리고 제작을 맡은 YTN DMB의 마라톤 기획회의로 이어졌고 진통 끝에 5월 2일 첫 방송을 하게 되었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개발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게 널리 알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한 출발선은 바로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아닐까?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만큼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큰 주제에 무게 중심을 잡고 첫 번째 코너를 만들었다. 어디에 문화유산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물론, 각 문화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또한 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후기로 현장감을 살리며 주말이면 어디로 떠나야할지 모르겠는 가족, 연인, 학생들의 고민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기특한 코너다, 한 가지 애





로사항이 있다면 비를 몰고 다니는 우리 연출진 덕분에 촬영 전 날 온 제작진이 일기예보에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전통 궁중음식을 소개한다. '쿡방(요리하다는 뜻의 Cook과 방송을 합친 말)'이 트렌드인 2015년, 가히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쿡방'이 방송가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기존의 전통음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궁중음식 소개라는 점은 분명 신선함이 있다. 음식 속에서 함께 애환을 같이 했던 당시의 왕실 모습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 그 재미 또한 쏠쏠하다.

기획 단계부터 문화유산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어떻게 부드럽게 풀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사실, 정답은 아직 못 찾았다. 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먼저, 가까이에 두고 볼 것. 실제로 옆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만큼 빠르게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없다.

두 번째, 자세히 볼 것.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알고 보면 그 가치를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 봅시다! 얼 쑤~"



국악인 남상일의 구수한 우리가락 한 소절로 시작하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행사가 많이 중단 돼 조금 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전달하지 못 한 점이 아쉽지만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을 많은 시청자들이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열린 사고(思考)의 YTN

신 율 교수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 목 중에 '영화와 정치'라는 강의까지 있을 정도 다. 물론 평론가 수준은 못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버릇'은 독일 유학시절에도 이어졌었다. 하루에 1편은 어디서든 영화 를 봐야 다른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그래서 학위 받기 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정도라고 자부한다. 일부에서는 영화를 단 순한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한다. 물론 이런 생각도 맞다. 영화 에서 오락성을 제외한다는 건, 영화를 일종의 "학습 수단"으 로 생각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학습수단 이 아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걷는 것을 배 우고, 언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일종의 '습득' 과 정이다. 그러니까 영화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보는 존재라기보 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속의 숨은 뜻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다. 여기서 영화 속에 숨어있는 '뜻'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화가 상당한 사회적 의 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부의 영화가 이런 사회 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건 영화제에서 상을 받 은 '심각한 영화' 뿐만이 아니라. 오락성이 강한 영화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영화이든 사회적 의미를 뽑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 리나라 언론 중에 YTN이 가장 자주 영화 속에 등장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개봉된 '어벤져스 2'에서도 YTN 이 등장하고, 그 이전 '감기'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 영화에서 도 YTN은 등장했다. 이는 YTN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이라는 사실을 영화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영화를 보면서 자 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백번 대한 민국 제1언론이라고 떠드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광고라고 생각한다. 물론 거꾸로 YTN이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화사가 자주 YTN을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고 생각한다. 특히 시청자를 계몽하기보다는 시청자들과 호흡

할 수도 있다. 뭐가 먼저든, YTN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이 큰 언론사 중의 하나임을 자주 각인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듯 언론사가 영화에 '협조' 하기란, 우리나라의 고루한 언론 풍토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 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종의 '순혈주의'를 고수하듯. 언 론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도 있 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 큼 YTN의 사고가 열려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방송 진행을 했던 경험으로 볼 때. 열린 사 고는 언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 사 고를 가져야만 사안이 제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열린 사고를 가져야만 '사실의 전달'도 제대로 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곧 시청자들과의 눈높이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방송에서의 전달력은 상당히 중 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제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도 전달력이 떨어지 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은 강의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학시절 미국 유명대학에서 학위 를 마치고 막 귀국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분의 강의를 들으 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물론 그 분은 지금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존경받고 있는 인물 이지만, 강의 하나는 참 난해하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 의도 그런데, 하물며 방송에서의 전달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 다. 지난 20년 동안 YTN이 신뢰도나 중요도 면에서 가장 중요 한 언론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던 이유도, 또 앞으로 계 속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열린 사고, 그리고

하며 시청자들의 욕구름 충족시켜주는 것이 보도의 중요한 기 능이라고 할 때. 이런 열린 사고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 열린 사고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다. 나는 지 난 15년 동안 다양한 방송사에서 MC를 했었다. KBS, MBC. CBS 그리고 현재 YT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사를 경험 한 바 있다는 것인데, 이중에 YTN이라는 조직이 가장 편견 없 이 모든 사안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은 외부 MC인 내 개인한테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을 한 적 이 있다. 예전에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방송사에서 가 장 시청률이 잘나오는 편이어서 연말에 주는 최우수 프로그램 상은 무리 없이 받을 것이라고 제작진들은 생각했었다. 그런 데 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희한하게 계산해서 수상에서 제 외됐다 당시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새벽에 재방이 나갔는 데, 시청률을 재방과 본방의 평균으로 계산해서 최우수 프로그 램 수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었다. 물론 그런 상을 못 받아서 아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제대로 된 평가에 인색 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YTN은 다르다는 생각 이다. YTN은 비교적 편견 없이 프로그램과 MC를 대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작년 연말 '신율의 출발 새아침'도 상을 받았고. '신율의 시사탕탕'도 올해 상을 받았으니 말이다. 이런 고마움은 YTN의 열린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열린 사고는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고 정이라는 이름의 틀을 벗어나야. 새로움이라는 존재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만이 변화라는 이름의 사 회 적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YTN의 미래 이런 열린 사고에 기반한 전달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는 그 어느 언론사 보다 밝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꿈꾸는 주말뉴스팀 입니다"

이선아 기자 | 보도국 주말뉴스팀

나타났으니 주말이 다가왔구나." 목요일에 출근해서 돌아다니면 곳곳에 서 들리는 말입니다.

"주말도 아닌데 왜 나왔어?"

계십니다. 저희 평일부터 나와서 준비합니다.

"작가도 있는데 초안을 써야 되니?"

네. 주말마다 출연 코너가 10건 정도 되고. 정치적으로 민감 한 부분, 정확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취약하거든요. 현 장에서 뛰는 취재 기자가 흐름을 잡아주고 오류를 바로잡아주 주말 출연 원고 신경 쓸 겨를 없는 것도 정말 잘 압니다. 그래 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쇼'가 아닌 '뉴스'니까요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면 반갑지만, 출연 원고 초안 요청하 면서 귀찮게 하는, 주말뉴스팀입니다. 작명이 잘못되는 바람 에 주말 뉴스 시청률 총책임 팀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말 섭외팀'입니다. 선후배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

저희 팀은 김승재 팀장과 박경희 작가, 권행란 작가, 저 이렇 게 네 명입니다. 작가 분들은 출근하는 날이 나뉘어 있어 금요 일만 네 명 완전체를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3층 오디오 부스 앞에서 일하다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4층 편집부 에 합체돼서 일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취재부서 생산 제품이 평일보다 부족해 전 무가 출연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쉬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하 기 쉽습니다만 시청률만 놓고 보면 평일 뉴스 못지않게 나옵 니다.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에는 주말 출연 원고 10분 만에 '후루룩' 써서 넘겼는데, 돌아가면 출연 코너 재밌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쓰려고요. 반성하고 다짐했습니다.

팀이 생기고 초반에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아이템 발제도 하고 구성도 해 가면서 출연 아이템 다양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요 시청자 층은 경성 뉴스를 선호한다는 회사 판단 아 래 이제는 대부분 무거운 주제로 출연 코너를 채우고 있습니 주말뉴스팀이 생긴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묻는 분들이 다. 일면 아쉽기도 하지만, 아이템이 제한적이다 보니 깊이 있 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아이템이 반복되는 만큼 소주제와 소재를 잘 정해야 출연 내용이 뻔하지 않겠죠. 여러 선후배 동료 여러분 평일 하루하루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말 그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신 것 잘 알고. 서 질문지에 대한 예리한 코멘트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고맙 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가장 보람 있을 때는 갑자기 큰 일 터졌을 때(공연장 화풍구 붕괴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뉴스 시간마다 전문가 섭 외를 해서, 특보를 이끌어 나갔을 때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 노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말뉴스팀의 존재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 주말뉴스팀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면 관계 상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일요일 예고 리포트용 인터뷰를 토요일 출연자 왔을 때 딴다든가. 그 날 발생 관련 인터뷰를 하면 굳이 외부로 일정을 나가지 않고도. 또 음질 안 좋은 전 화 녹취를 활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답니다. 항상 취재 부 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상 두서없이 쓴 주말뉴스팀 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말뉴스팀이지만, 주말에는 뉴스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금상 1건 _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취재 보도







언제나 좋은 기사의 힘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료에게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김지선, 시철우 기자의 열정과 노력, 선배들의 인정이 큰 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취재 보도 _ 이만수 (정치부)

김지선 정치부

금상 1건 _ 임신부 메르스 감염 최초 보도

이 만 수 정치부





수상 소감 / 임신부 메르스 감염 최초 보도 _ 김기봉 (문화사회정책부) 국가적 재앙답게 터프했던 메르스 취재.

이 와중에 접한 '임신부 메르스 제보'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지만 외면할 수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대책없이 고립돼 있던 임신부와의 단독 인터뷰가 끝난 뒤 첫 보도가 나갔고 전국의 언론이 이를 받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숭고한 과정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됐고 집중 캐어를 받은 임신부는 메르스 완치와 함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임신부가 연출해낸 '해피엔딩'은 메르스 우울증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됐다고 믿습니다.

은상 1건 댕기머리 샴푸. 허가 따로 제조 따로 단독보도











동상 1건 _ 김정철 런던 출현 보도



최명신 차장 _ 국제부 동경지국

·정의 달 특별기획 '거리의 노인들' 제작 방송

수상 소감 / '거리의 노인들'제작 방송 _ 방병삼 (편성제작국 제작팀)

수송동 사옥 시절 이후 정말 오랜만에 상을 받으니 기분 좋습니다. 그간 상도 못 받고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금도 크게 오르고 했으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상 탈 일 수두룩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상금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 병 삼 부장 편성제작국 제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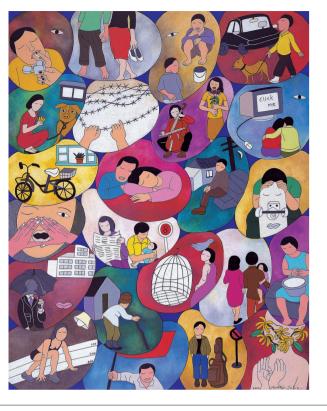
5/6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선정 이유 _ 강성옥 팀장 (기획조정실 인사팀)

5월의 보도부문 특종상에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평소 출입처와 취재원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에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까지 거쳐 완벽한 특종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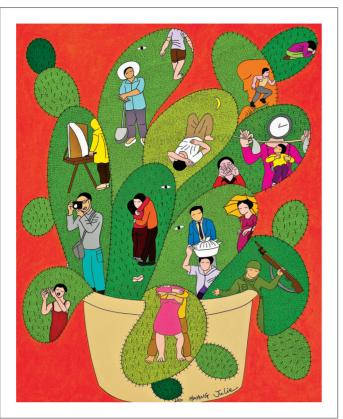
6월의 보도부문 특종상 금상을 받은 '임신부 메르스 감염' 보도는 제보를 토대로 발생에서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앞서가는 보도를 한 점이 높게 평기받았습니다. 은상을 받은 사회부의 "댕기머리 샴푸, 허가 따로 제조 따로" 역시 제보를 토대로 사실확인과 사후조치까지 치밀하게 보도한 점이 평가를 받았고, 국제부의 '김정철 런던 출현' 보도는 일본 TBS 방송을 설득해서 오히려 TBS보다 먼저 방송을 한 공로가 인정돼 동상을 받았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반기별 우수프로그램상 부문에는 편성제작국의 '거리의 노인들' 3부작이 금상을 받게됐습니다. PD와 VJ 1명이 6개월에 걸쳐 취재하며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담담한 시선으로 조명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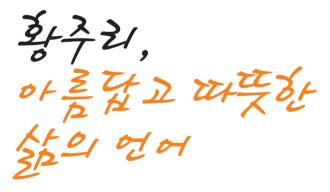








식물학 122×153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9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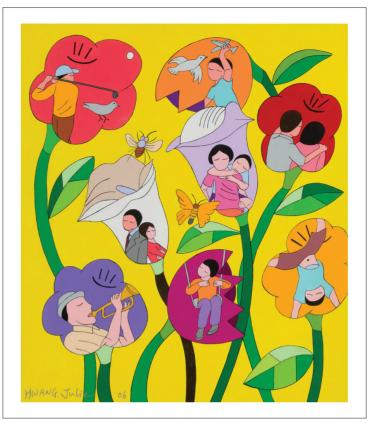
식물학 182×227cm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9

황주리의 경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다. 바로 대학 원에서 미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다른데, 통상 실기를 하다 이론으로 방향을 튼 예는 많 은 반면 그 반대의 상황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황주리는 살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대한 사색 깊은 언어에 능숙하 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것도 그의 눈길이 머물면 문학이 되고 그림이 된다.

문학,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황주리는 그림뿐만 아니라 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는데. 「세월」을 비롯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나 흙이 묻었다」 등의 산문집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들의 자전적 에세이를 담은 "예술적 영혼에 상처받은 꿈을 위하여」를 펴냈으며, 그림 소설 "그리고 사랑은」(부제 '사랑에 관한 짧은 노래', 2012)등을 출판하기도 했다.

책들은 하나같이 '사랑'이라는 낱말과 따뜻한 인간애가 '일상'이란 거 푸집 아래 담담하게 녹아 있다. 쓸쓸한 사랑, 마음 아픈 사랑, 고독한 사랑이 있는 반면 상큼하고 발랄한 사랑,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까지 여러 색깔의 사랑이 잔잔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사랑과 만남, 느낌과 두근거리는 일상의 신비감을 9개의 이야기



식물학 46×53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6

로 담은 그의 첫 그림소설인 『그리고 사랑은』은 작가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운율을 전달해온 황주리의 휴머니즘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때문에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자전적 경험에 반추된 위로와 평안, 안식과 위로, 기쁨과 슬 픔. 외로움과 생의 환희를 체감하듯 느낄 수 있고. 이는 황주리 문 학이 지닌 특징이다.

황주리의 그림 역시 '사랑'이란 명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사랑 의 설렘에서부터 만연의 사랑까지, 그의 많은 작업에서 개념적으 로 또는 실체적으로 '사랑'은 곳곳에 똬리를 튼 채 들어서 있다. 그 러나 누구도 황주리의 작업을 단순히 '사랑' 만으로 정의하진 않는 다. 그의 그림을 관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한 인간에 관 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대 안의 풍경〉(2000~)시리즈나 〈여행에 관한 명상〉 (2007), 〈의자에 관한 명상〉(2004), 〈삶은 어딘가 다른 곳에〉 (2002), 〈그래도 삶은 계속 된다〉(2001~2003) 등의 작품들은 뭇 사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눈길과 일상의 소 소함이 정겹게 묻어난다. 그건 때로 예술가 지망생에 대한 용기와 응원으로 치환되거나. 자비로움이 부족한 시대에 대한 작은 단상 으로 자리한다. 특히 〈자화상〉(2000~) 연작도 그렇지만 먼저 떠 을 지도 모른다.

난 영화제작자 동생을 꿈에서 만난 장면을 옮긴 그림 등에선 실존 의 문제와 더불어 '빈자리'에 대한 회상이 애잔하게 피어있다.

957 서울 生, 1991 뉴욕대학 대학원 졸업, 1983 홍익대학 대학 면 미학과 졸업 1980 이화여자대학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29회, 국제전, 단체전 500여회 / • 수상 : 1986 저

이처럼 황주리의 그림에는 화롯불마냥 상처받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묘한 여운이 있으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결핍과 갈 망. 꿈과 현실이 조화롭고 진솔하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의 그 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굳이 긴 설명을 달지 않아도 삶과 사 람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과 마음이 어깨 너머로 조용히 다가와 안 아주듯 다가선다는 것이며, 보편적인 삶에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 이 덧대어지면서 우리네 삶이 보다 특별해진다는 것에 있다. 그리 고 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조형언어로서 부족함이

한편 황주리 작가의 글과 그림을 만나고 싶다면 문화웹진 「나비」 에 연재 중인 그의 그림소설을 권한다. 그의 일상 속 예술이 어떻 게 조화롭게 꽃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삶의 순간순간을 자 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채워놓고 있는 페이스북을 갈무리하면 된 다. 어쩌면 미시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생 각하게 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 거 대한 담론이 되고 시대의 모더니티가 될 수 있음을 목도할 수 있



Q. 킹스맨과 셰프, 두 가지 변신을 시도한 소감?

'킹스맨'은 딱딱한 영국 신사도 매력적인 액션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였죠. 영국에서 유학하고 런던 특파원도 했다는 점을 감안해 킹스맨으로 '무리한 변신'을 시도해 봤습니다..;; 영국 신사 느낌이 드는 〈뉴스맨〉, 딱딱하지만 매력적인 앵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셰프 이미지는 사진 촬영 중에 나온 즉석 아이디어에 따라 찍게 됐는데, 평소 사진 찍는 게어색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토그래퍼분들이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나중에는 어색함을 잊고 편하게 찍은 것 같아요. 영광이었습니다.^^

Q. 자신의 이미지 중 좋은 점과 고치고 싶 은 점?

성실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 가 좋습니다. 고치고 싶은 점은 회사 동료 들로부터 뭘 해도 어색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뭘 해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Q. 새로 시작한 '뉴스타워' 소개 부탁한다.

뉴스 전문채널인 YTN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고민하다 친한 회사 동료로부터 '뉴스타워'라는 아이디어를 얻



었어요. 사전적으로 '타워'에는 '뉴스를 송신한다'는 의미와 '전망대'라는 뜻이 담겨 있고, YTN이 소유한 서울타워는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쟎아요. 뉴스타워가 그렇게 YTN을 상징하는 명품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YTN을 대표하는 여성 앵커 김선영 씨와이승윤, 두수진 PD, 이미경, 박인경 작가, 문명배 VJ, 김가희 AD가 프로그램 식구들 입니다

Q. '뉴스타워'의 색깔은?

뉴스타워는 〈생생한 뉴스〉, 〈멀리 보는 뉴스〉라는 2가지 색깔을 추구합니다. 1부인 오전 10시대에는 생중계나 전화 연결 등을 통해 생생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2부인 11시대에는 전문가나전문기자가 출연해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또 요일별 특화코너도 마련해 정치, 영화, 경제의 최신 소식들을 재미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Q. 영국 최고의 신문방송학 기록을 가진 '카디프 언론 대학원' 졸업, 언론인으로서 어떤 점이 도움 됐나?

2001년 YTN 아침 뉴스프로그램인 〈뉴스출발〉 앵커를 마치고 회사에서 해외 연수 자로 선발됐습니다. 그즈음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게 돼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저널리즘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의 젊은 언론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갓태동하던 뉴미디어의 동향을 배웠는데요. 특히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유통과 홍보행태 변화 등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BBC등 주요 언론 출신 교수들의 강의 내용도실무에 도움이 됐습니다.

Q. 입사 후 기억에 남는 시절?

시경 캡으로 불리는 사회부 사건팀장과 런

던 특파원 시절은 오랫동안 기억이 날 듯합니다. 시경 캡으로 이른 아침부터 사건을 추적하고 밤늦도록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으로후배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런던 특파원 시절은 유럽 재정위기와 아랍의 봄 사태, 런던 올림픽까지 뉴스가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리비아 취재가 위험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 출입이 통제돼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으로 스탠드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국내 언론 최초의 스마트폰 스탠드업이 아닐까…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앵커, 노력하는 앵커로 불리도록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뉴스, 멀리 보는 뉴스〉 YTN 뉴스타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린 시절, 집에는 항상 클래식 FM이 흘러나왔어요. 음악을 좋아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니 랑 저도 악기에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활동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피부에 맞닿은 두툼한 나무 느낌과 차가운 쇠의 촉감. 특히 송진 냄새와 현악기 특유의 나무 향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바이올 린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바이올린은 한 마디로 '세련된 여성'이에요. 날카롭다가도 부드럽고, 끈적이면서 날렵한 선율을 내거든요. 이게 한 악기로 다 표현된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죠. 화려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팜므파탈' 같아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죠.

"첫 독주회, 그리고 카네기 홀에 서다"

어른들이 누구나 한 가지의 재능을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돌이켜 보면 제 경우 엔 바이올린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회는 대학원 졸업연 주회예요. 난곡으로 유명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했는데, 그 장소가 카네기홀이었어요. 그때 그 무대 위의 공기, 열기, 숨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청중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했던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이층집, 작은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소녀가 10여 년이 흐른 뒤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가 끝나고 공연장을 나와 걷는데 문득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해보고 싶은 걸 해봐도 되겠구나…'



"용기,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

그렇게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어요. 앵커에 대한 꿈. 한편에 접어두었던 마음이 바이올린과 함께 자라 있더라고요. 이제 앵커 3년 차. 무대 위에 섰던 경험들은 카메라 앞에서의 울렁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새벽 뉴스에 오후 녹화까지 몸이 피곤해도 녹화가 시작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고요. 제 롤모델인 첼리스트이자 CNN의 전 앵커인 '폴라 잔'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연주자에게는 세 가지 귀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내는 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귀와 무대 위에서 같이 연주하는 상대의 소리를 듣는 귀, 마지막은 청중의 소리를 듣는 귀이다." 앵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앵커석에 앉은 저, 함께 일하는 팀원들,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과의 소통.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훌륭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말 좋은 무대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잘 만들어진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제 꿈입니다.



선화예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학사 Boston Univ. CFA(College Of Fine Arts) 석사

독주회 2회(Boston Univ. Concert Hall) 뉴욕 카네기홀, Boston Sympony Hall 공연

Asian Youth Orch. 단원으로 아시아 5개국 순회 연주 참여 등 오케스트라, 챔버, 트리오 연주 다수



01 2+18401 7tt!!

이한빈 | 기획총괄팀



'이 화백', '이 선생', '이 프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뜻밖에도 요즘 회사 동료들이 저를 부 를 때 불러주는 별명들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몇몇 분들에게 '인물 스케치'를 그려드린 것이 계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ㅎㅎ 기가 됐습니다.

지난 봄 핸드폰을 OO갤럭시노트엣지로 바꾸게 됐는데 다운 받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의 '그림 그리기 애플리 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초상화 그리기'가 저 '스케치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그 사진을 다시 불러냅니다. 의 새로운 취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림 그리기를 즐겼던 사람도 아니고, 그림에 재능 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그리게 된 인물 스케치가 실제 인물과 흡사하다며 여러 사 람들로부터 '이 화백'이니 '이 프로' 등의 별칭과 함께 과분한 칭찬 을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초상화를 그려드리다 보니 제 스스로가 갖게 되는 성취감도 적 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으로 '거의 반 강제로(?)' 밥 지금까지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TV를 보거나 핸드폰 게임을 즐기 게 됐습니다.

것으로 소일했던 저는 이제는 틈만 나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 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실력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 게 되고 더 나아가 저의 보잘 것 없는 실력이나마 '과시'하고 싶은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진 위에 얇은 습자지를 겹쳐 올 려놓고 사진 인물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선 원하는 인물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다음. 그런 다음 인물 사진 위에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는 방식으로 그 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림을 다 그린 뒤엔 맨 아래에 놓인 사진을 없애면 제가 그린 그림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제대로 된 아마추어 수준도 안되는 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제 이야기를 사 보에 싣겠다고 제안했을 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선 후배 동료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이 거듭되면서 어느덧 한 가 지 목표를 갖게 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제 이야기를 널 이나 술까지 사주시니 그 만족감은 이를 데 없이 큰 것 같습니다. 리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제안을 수락하



저의 목표는 회사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 제 핸드폰에 따로 폴더를 만들었고 폴더명은 'YTN PEOPLE'입니 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상화를 그려드린 분은 모두 41명 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나하나씩 채워지는 핸드폰 화면을 볼 때면 "다 못 그릴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리냐구요? 글쎄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족히 2~3 시간은 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중엔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만들어 놓아야 좋다 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뭐 하나라도 만들면 좋겠는데 이건 딱히 돈도 들지 않으면서 자기 만족도도 높아지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중에는 완성작을 보게 될 사진의 주인공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힘든 줄도 모 이렇게 단순히 그림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소중한 추 르고 더욱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YTN의 삶과 추억을 그리다!!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그리고 같이 생활한 사람들은 제 추억의 일부입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회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준비하면서 간간히 정년퇴임식을 볼 때 면 젊은 시절부터 열정을 다 바쳐온 회사를 떠나는 기분이 어떨 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린 그림을 엽서 형식으로 편집해 선물하면 좋아하 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린 그림을 세월이 지나 서 다시 들여다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젊고 괜찮았었지.."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아!!! 이때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이 이 랬었지…란 생각도 들겠죠?

억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립니다. 사보에 실린 그림을 보시고 잘 그렸다거나 제법 그럴듯하게 그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 을 해주세요. 제가 바로 바로는 못 그려드리지만 틈나는 대로 열심 히 그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죠?^^ 밥 사주시면 좋고 술은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럼 YTN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는 그날까지 YTN forever~~~



〈소수의견〉을 통해 본 언론의 딜레마

先次しい、地次しい

최광희 영화평론가

카툰 : **최재용** 차장 | 홍보·시청자팀



25일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제) 은 철거 농성장의 강제 지안 과저에서 범이 은 철거 농성장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벌어 진 비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담아내고 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 서 두 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다. 한 명은 현장에 아버지를 보 🥏 중에 그의 아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 러 왔던 10대 소년, 또 한 명은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의경이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을 우발적으로

호의 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건 경찰이 아니라 철거 용역이므로 박 재호가 엉뚱한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국선 변호를 맡 게 된 진원(윤계상 분)은, 그러나 박재호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와 이 높다는 심증을 굳히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소송 을 건다. 지원은 자신의 선배 변호사인 대석(유해진 분)을 사건에 살해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 분)는 검찰에 기소된다. 검찰은 박재 끌어 들이는 한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본격 소송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 여기자 한 명이 이 들의 소송 과정에 깊이 개입 하는데, 그녀는 바로 강제 진 압 현장에 있었던 사회부 기 자 수경(김옥빈)이다. 영화 속 에서 수경은 당차고 정의로운 기자로 묘사된다. 그동안 대개 의 한국영화 속에 비쳐진 언 론의 모습이 다분히 권력에 기생하는 악어새나 특종을 위 해 배신을 서슴지 않는 박쥐 와도 같은 존재로 그려졌다면. 수경은 한국영화에서 모처럼

어 오는 검찰 앞에서 주눅 늘고 힘겨워 하는 진원을 끊임없이 응 원한다. 그리고 여론을 진원 팀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기사를 쓴 다. 수경 덕분에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조계의 아웃사이더 에 머물던 변호사 진원은 일약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그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국가 시스템에 대항하는 일군의 젊은이 들이 이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과연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몰입하게 만든다.

진원과 대석 팀은 소송의 외중에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는 걸 넘어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진원은 망설 인다. 이걸 지금 공개하는 것이 과연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 가. 그들과 함께 증거를 확인한 수경은 눈을 반짝인다. 엄청난 특 종이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당장 기사를 쓰기 위해 달려간다. 하 지만 그런 그녀를 진원이 막아선다. "당신은 고작 이걸 기사화하기 위해 우리랑 여기까지 왔던 거야? 지금 그 까짓 기사 몇 줄이 그 렇게 중요해?" 진원은 만약 이것이 기사화됐을 경우. 검찰이 또 다 른 방식으로 그들을 방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꼬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테면 언론의 딜레마라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다. 지금 터뜨리면 엄청난 대 특종이 될 터, 다른 언론들은 그걸 받아 쓰느라고 바쁠 것 이고 기사화한 주인공은 일약 특종 기자가 되는 것이다. 하 지만 만약, 소송의 목적이 최 종적인 승리라면, 그러니까 피 고인 박재호의 억울함을 풀어

만나는 기자다운 기자다. 그녀는 공권력을 앞세워 자신들을 옥죄 주고, 더 나아가 소송의 피고인 국가, 즉 대한민국의 유죄를 입증 하는 것이라면, 기사화를 조금 늦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는 진 원의 판단도 일리는 있다.

> 하지만 수경은 매몰차게 진원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 기자야!" 이 말은 많은 뜻을 품고 있다. 자신은 특종 앞에서 망설일 수 없는 직업적 본능의 소유자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 확 인된 사실 앞에서, 그것도 국가 권력의 엄청난 부도덕을 목도하고 도 침묵하는 것은 언론의 윤리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전략과 언론의 윤리가 충돌하는 순간이다. 더 큰 진실을 위한 행보에서 어느 선택이 더 맞는 것인지는, 물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실제 언론인들이 숱한 보도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를 영화 〈소수의견〉은 매우 설득력 있게 펼쳐 보여준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불명확한 진실을 규명하 기 위해 사실을 잠깐 유보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진실의 향방과 관련 없이 확인된 사실을 즉각 보도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수경의 딜레마가 비단 영화 속의 상황으로만 머무는 일은 아닐 것이다.



20c

21c



"두껍아, 두껍아 천 김 줄게, 세짐 다오"

어렸을 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에서는 어 김없이 두꺼비 놀이를 했다. 이때 모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두드리며 해주는 주문 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였다.

여기에 안으로, 안으로 파고들며 옆집과 터널도 만들고 점점 큰 공간을 만들어 갔고욕심을 내서 점점 더 근사한 공간이 생길때쯤 되면 어김없이 두꺼비 집은 붕괴되고말았다.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너무 섭섭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것은 현실의 집에서 가질 수 없는 자기 공간에 대한 꿈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했기때문일 것이다.

1981년 어느 날 신문 지면에 지금으로 말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0여 개의 개발지구가 발표됐다. 이 신문 쪽지를 가 지고 한 군데씩 촬영하며 지워가는 과정은 꽤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뭔가를 기록한다 는 것은 마치 학자가 어떤 학문 성과를 이 루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그런 성취감과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사진을 촬영하던 때는 미국에서 세리 레빈(Sherrie Levine, 1947~)이 포스 트모더니즘 사진을 발표할 시기였다. 내가 소위 말하는 다큐멘터리, 사실적 기록이 사진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때이기도 하다. 지금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단어를 듣기는 했지만 그 개념은 알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단어를 생각해

김정일 | 사진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前 KBS미디어 출판사진팀장, 멀티미디어 팀장, KBS교육아카데미, 글로벌 사업부, 중앙대학교 능력개발원 사진 아카데미 출강 현재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볼 때 우린 아직 근대였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사유가 근대면 나오는 사진도 근대적 사진이 그 사회의 주류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신뢰를 무너뜨린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큐멘터리 사진이 다 허위적인 것은 아니다. 한 동네를 촬영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귀가해 현상할 때의 그 설렘을 생각하면 그 말이 옳다고 지금도 난 생각한다. 지금은 상전벽해라할 수 있을 만큼 두껍이가 새집을 주어 현대식 건축물이 즐비한 상암동도 내가 찍을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운 연기와 메케한 냄새로 코를 막던 곳이었다.

모두 모두 '두껍아'를 잘 외친 덕에 뜨거운 물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빌딩이 즐비한 상암동,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니까?

두산타웨에서 본 DDP 건물

우리는 어느새 그 자리에 1905년 경성운동 장으로부터 비롯된 110년의 대한민국 체육 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던 동대문구장의 존 재조차 까맣게 잊고, 거대한 UFO가 내려앉 은 듯한 DDP건물을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는 듯 아무렇지 않게 들락거리면서 현 재에 새로 주어진, 아직은 우리의 삶과 조금 은 동떨어진 듯한 전위적인 건축물을 동물 원 구경하러 가듯 하고 있다.

많은 비난을 감수하며 꿋꿋하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행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벌써부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당시대에는 사치스런 건축물이 후대에는 자 긍심으로 남을 것"이라던 말에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학자나 이 분야 특별한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고 한편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 그대로만 눈에 들어 올 뿐일 것이다. 이라크 출신 영국인인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축물이 대한민국 한 복판에도 있다는 사실에, 언젠가는 그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없으리란 법도 없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동시간에 제주에서는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레고레타의 유작 건축물이 포크레인에 무참히 부셔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기억의 한 조각이라도 시간과 역사 를 생각하며 카메라라도 다룰 줄 아는 우 리 같은 사람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작은 의무라면 의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최민호** | 사진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前 ㈜제일기획, ㈜커뮤니케이션포토 현재 대학출강, 잡지, 출판, 레코드 자켓 등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평소의 생각이다. 사진에는 여러 장르의 사진이 존재하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이상은 이 작은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연찮게 기록한 수 십 년 전의 사진이 긴세월이 지나서 다른 가치로 주목 받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런 의무감이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재를 기록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진가"란얘기가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시대를 기록하지 못해 아쉬워하지 말고 미래에 펼쳐질 시대에 대비해서 당장 현재의 내 주변의 삶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봄은 어떠하리요? 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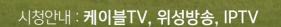
NOTICE BOARD

휴직 보도국 전국부 제주지국 고재형 5.8 / 뉴스지원팀 사원 김수진 5.22 / 영상아카이브팀 사원 김현미 5.24 / 문화사회정책부 차장대우 박신윤 5.31 / 편집2부 사원 이정미 6.7 전보 비서팀 김세희, 이선주 5. 7. / 전주지국장 부장대우 황보선 6. 15 / 보도본부 해설위원실 편집위원 부국장대우 권오진 / 보도국 기획제작팀 영상취재1부 차장 박정호, 영상편집부 사원 이현수 6, 22 <mark>퇴사</mark> 타워사업국 타워운영팀 **홍재완** 5, 11 <mark>복직</mark> 보도국 그래픽팀 사원 노선숙 5, 11 / 영상편집부 사원 전성미 6, 4 수습 종료 (공채 16기) 보도국 수습사원 강희경, 김승환, 차유정, 최두희, 최민기 사회부 5.17 의원면직 타워사업국 타워운영팀 사원 김희석 5.15 / 보도국 기획제작팀 사원 조임정 5.18 / 편성제작국 편성팀 사원 김태형 5.31 / 보도국 그래픽팀 사원 장 선 6, 30 입사 타워사업국 타워운영팀 이윤재 6, 15 인사발령 강릉지국장 보도국 전국부 강릉지국 송세혁 6, 9

24시간 생생한 날씨와 생활정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YTN과 말로하는전화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광고하고, 말로하는전화 1636에서 판매해 드립니다.

지역경제 참여를 원하는 시방자치단체는

캠페인 신청바랍니다

말로하는전화 1636 전속모델 2014 미스코리아 眞 김서연

참여를 원하시는 지자체는 163 6 걸고 '지역경제살리기' 말씀해주세요.